

대입 실기시험 코앞인데...수험생 한숨

코로나에 학원 문 닫아 준비 못하고 일정·방식 바뀌며 혼란 늘어

대입 실기시험을 코앞에 둔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늦춰진 일정 탓에 준비기간이 줄었고, 시험방식까지 일부 바뀌면서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예년에는 정식 실기시험 기간이 가, 나, 다군 대학별로 10일 정도 배정됐지만, 올해는 8일씩으로 줄어들었다.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가군 대학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나군 1월 21~28일, 다군 1월 29일~2월 5일까지 시험을 치르게 된다.

표면상으로는 이들이 줄었지만 대학들의 실기시험 일정이 비슷한 기간에 몰려 있어 실제로는 더욱 빡빡하게 시험이 치러진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한 대학의 실기시험을 본 후 바로 하루 뒤에 다른 대학의 실기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생겨, 사실상 일주일 동안 2개의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입시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학교보다는 학원에서 입시를 준비하는 예체능 계열 수험생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학원마저 문을 닫는 상황이 되풀이되면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촉박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광주 동구 한 미술입시학원 강사는 "미술 입시생의 경우 집에서 혼자 준비하기 어렵고, 비대면 수업의 경우 일반학생보다 효율이 떨어져 어려움이 많다"며

미대
실물 대신 사진 보고 그린 후 동영상 제출
음대
연습실 확보·시험 대체 영상 '부익부 빈익빈'
체대
시험 종목 확정 늦어져 전략 짜기 쉽지 않아

"더욱이 매년 대학에서 개최했던 실기대회를 비롯해 학원들이 연합해 진행했던 모의실기대회 등도 없어지면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정도 문제지만 시험 방식이 실물에서 사진을 그리는 방식으로 변하거나 시험시간이 줄어들고, 면접을 동영상상을 찍어 제출하는 등 이전에는 없었던 시험방식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일부 대학의 경우 같은 학과 실기시험을 오전, 오후로 나눠 다른 문제를 출제해 분반별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음악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역시 연습실 확보와 실기시험 동영상 제출 대체 등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전남지역 예술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음대는 단 몇 분 동안의 연주로 입시가 끝나는데 수정 작업이 불가능하고, 짧은 시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실수 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데 일부 대학의 경우 실기시험

을 동영상 제출로 대체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며 "급전적 형편이 좋은 학생은 영상을 긴 시간 동안 여러 번 찍을 수 있지만 반주 비용, 스튜디오 대여 비용 등을 부담하기 힘든 학생들은 영상을 찍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음대 입시는 많은 연습량이 절대적이고 이에 따라 방음 장소가 필수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연습실이 문을 닫았다"며 "이 때문에 학교에서 연습실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서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체육학과를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실기시험 일정의 단축은 물론 대부분의 체육 입시학원이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어 문을 닫았던 기간이 길어진 탓에 불안 속에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체육 입시 역시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 뛰기, 제자리 높이 뛰기 등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 계측기로 측정하며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혼자서 입시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은 마찬가지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시험 종목이 시험 일주일 전에 없어지는 사례도 있어 학생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에서 체육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지도하는 강사 권혁씨는 "일정이 빠듯한데다 종목마저 늦게 확정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많다"며 "학생마다 장점에 맞춰 지원학교를 선택하고 전략을 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한겨울의 상큼함 11월 나주시 송촌동 시설하우스에서 농민들이 한라봉을 수확하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으로 당도가 높고 껍질이 풍부한 나주한라봉은 3kg들이 한상자에 평균 2만5000원선에 거래된다. /최현배 기자choi@

“갑질 당했다” 유독 높은 광주 공직사회

광주시 감사위, 시 직속기관 등 조사

2명 중 1명 꼴... 전국 직장인의 1.5배

‘인격 비하발언·폭언·폭행’ 35.7%

갑질 당했을 때 “그냥 참았다” 74.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공무원 사회의 직장내 갑(甲)질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경험 설문조사결과 ‘직장 갑질을 겪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전국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보다 1.5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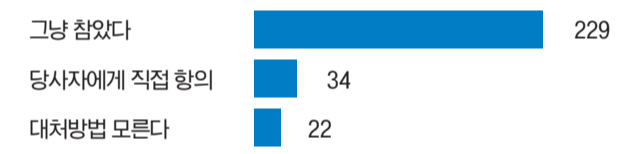
11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시와 직속기관, 사업소, 시의회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갑질 실태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직원설문 조사결과보고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608명) 중 308명(50.6%)이 갑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시민사회단체인 ‘직장갑질 119’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34.1%가 직장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보면, 광주시의 직장갑질에 대한 인식이 낮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갑질 피해내용으로는 인격 비하발언·폭언·폭행(238명, 35.7%)과 부당한 업무지시(195명, 29.3%)순으로 나타났다.

■광주 공직자 갑질 피해 내용 (단위:명)



■갑질을 당했을 때



갑질을 당했을 때 광주시 공무원들은 대부분은 그냥 참았다(229명, 74.4%), 갑질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한 것은 11%(34명)에 그쳤다.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답한 공무원도 3.6%나 됐다.

갑질의 원인으로는 상명하복의 서열구조, 권위주의 문화 등을 꼽았다. 구체적 사례로는 ▲일방적 업무지시 ▲업무 떠넘기기 ▲부당한 업무지시,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명령 ▲직급을 이용한 인격비하 등 폭언 ▲상급자의 편파적 업무지시 ▲업무관련 의견 무시 ▲과장·계장 간 인간관계(친분 정도 차이)에 따라 팀 성격에 맞지 않는 추가업무 발생 등이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전남도는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1월부터 시·군과 함께 불법어업 지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참여하며, 도 및 시·군 보유 어업지도선 17척과 공무원 50여 명이 투입된다.

특히 18일부터 22일 기간 중에는 도, 시·군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시기는 명절 수산물 수요 증폭을 위한 불법어업 성행과 어패류의 과도한 포획·채취로 자원량이 감소하고, 무면허 양식시설도 증가해 가격하락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단속은 주로 ▲과잉생산을 조래, 가격하락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유해약품 사용 ▲조업구역 이탈, 어구 초과부설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행위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준비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의 원칙을 갖고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될 경우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불법어구도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조치 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돼지 심장혈관 이용 동맥경화증 모델 특허등록

전남대병원 김문기·정명호 교수팀

보건복지부 지정 전남대병원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의 김문기·정명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돼지 심장혈관을 이용한 죽상관상동맥경화증 모델이 최근 국내 특허 등록을 획득했다.

이번 모델은 돼지 관상동맥에 죽상관상동맥경화증을 유도하는 방법으로서, 니코틴 및 혈관확장을 혼용하는 방식으로 최근 특허등록됐다.

특히 이번 모델은 기존의 돼지 죽상관상동맥경화증 모델에 비해 현저히 짧은 모델 유도기간과 함께 병변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세계 최초로 대학병원 이름을 따서 만든 심장혈관 스텐트(CNUH stent·상품명 타이거스텐트)에 이어 이번 모델까지 개발

함으로써 심장혈관 스텐트의 국산화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혈관계융합연구센터장인 정명호 교수는 “세계 최고의 심혈관계 스텐트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지금까지 3300여 이상의 돼지를 이용한 세계 최대 동물실험을 진행해 왔다”면서 “이번 돼지심장혈관 동맥경화증 모델 개발의 성공을 통해 기존의 동물실험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명호 교수팀은 동양인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최적화된 약물 요법 및 새로운 심혈관계 스텐트 개발을 위한 한국인 심근경색증 등록연구를 국내 대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광주 R&D 특구 내 국립심뇌혈관연구센터도 유치하는 등 국내 의료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채희홍 기자 chae@

전남교육청, 출산 장려 팔걸었다

교직원 최대 500만원 지원

전남교육청이 소속 교직원의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11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직원 자녀 출산 때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을 기존 추가

금에 더해 지급한다.

도 교육청은 또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로 교직원 본인만 가입이 가능했던 생명·상해보험을 배우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도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를 10만원 인상한 데 이어, 50세 이상 교직원 중 당해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최대 2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처우를 개선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원장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본당선 신정동역 2번출구에서 약 60m / 리마다 서울호텔 맞은편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